



# LIGHT

2018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평창의 겨울은 산, 나무, 들판, 계곡들이 온통 흰 눈으로 뒤 덮이고, 그 위로 비치는 햇빛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미디어아트와 창시자 백남준, 그의 뒤를 잇고 있는 류재하와 라이팅 설치작가 리경, 사진가 임영균은 모두 이런 빛에 매료되어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치는 작가들입니다. "빛을 따라 가는 전시"라는 스토리 안에서 한국 미술의 보석 같은 작품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Pyeongchang, the host city for the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welcomes the world with its beautiful weather and spectacular sunlight radiating over majestic snow-covered fields, valleys and mountains. The founder of Media Art, Nam June Paik and his successors: Jaeha Lyu, Ligyung and Youngkyun Lim display their artworks under the theme "Light." The "Light" exhibition illuminates renowned Korean artists and highlights their artworks.



## 빛의 그림

류재하



## Picture of Light

Jae-ha Lyu



한국을 느끼다 미디어 설치, 프로젝트전 평창

## "한국을 느끼다"

작가 류재하는 비루를 보관하는 비루집 형태의 틀 안에 한국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도상을 배치하고, 그 위에 빛을 입혀 초현실적인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담, 불상, 기와지붕의 감상, 도자기, 민화의 호랑이 등 한국의 전통적인 조형미를 집약한 도상들과 현대의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만남을 통해 역사적 시공간을 넘나드는 몽환적이며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 줄 것입니다.

## "Fee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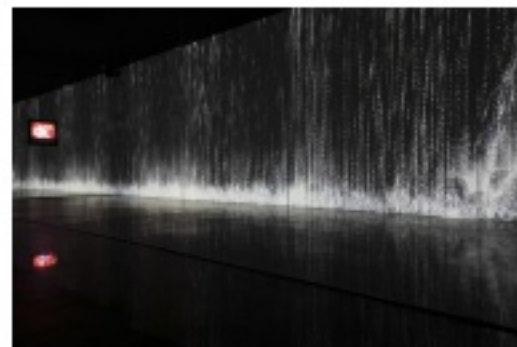
Jaeha Lyu, placed various symbolic object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on the ink-stone box frame. He created this into a surrealistic media artwork by highlighting the light into the box. He mixes traditional and aesthetic elements including tower, statue of the Buddha, ceramics, and tiger with modern technology, presenting a dreamlike atmosphere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 빛의 공간

백남준 x 리경  
미디어아트의 창시자 백남준과 라이팅 설치작가 리경이 만든 협업 공간

## Space of Light

Namjune Paik x Ligyung  
This section of the exhibition displays Nam June Paik's works together with Ligyung's artistic command of light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애라 미디어 라이팅 설치

이 곳에는 백남준의 작품 "거북"과 "M200" "비디오 상들리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대작들은 작가 혼자 완성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전자기술자, 영상편집가들과 함께 완성해 가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을 즐겼던 작가가 살아 있었다면, 빛으로 아름다운 예술을 펼치는 리경과 함께 멋진 작업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에서 탄생한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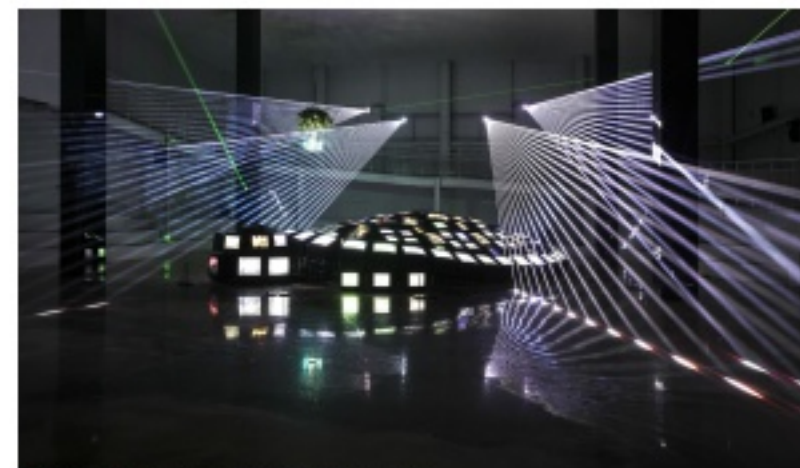
This space is home to several of Paik's famous works, including Turtle, M200, and TV Chandeliers. Turtle and M200 are works completed not by Paik alone, but with the help of electrical technicians and video editors. This is just one example of how Paik enjoys working together with other artists and experts in different fields. If Paik had been alive today, he surely would have sought to collaborate with Ligyung and her mastery of light to create even more mysterious and fantastic spaces of art

##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애라"

작가 리경은 백남준이 꿈꾸었던 자연과 문명의 조화에 영감을 받아 제주도 천지연 폭포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입구에 들어선 순간 마치 거대한 폭포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 "My Jubilee 1st Unverhemmet"

Ligyung, influenced by Nam Jun Paik's aspiration to harmonize nature and civilization, created her own artwork of Cheon-ji-yeon Waterfall in Jeju Island. Audiences are welcomed by enormous tunnel like waterfall making them feel as if they are passing through it.



거북 TURTLE video installation 150x600x1200cm 1993



## "백남준을 만나다"

임영균  
사진가 임영균이 찍은 백남준의 1980-90년대 뉴욕 시절 사진들 속에서 인간 백남준의 유쾌함과 소탈함, 그의 왕성한 예술 활동과 창작의 열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 "Meet Nam June Paik"

Young Kyun Lim  
Nam June Paik's pleasing and easygoing personality and his passion and enthusiasm for art are vividly reflected in Young kyun Lim's photograph works during the 1980s and '90s in New York.

## 빛의 오브제 Object of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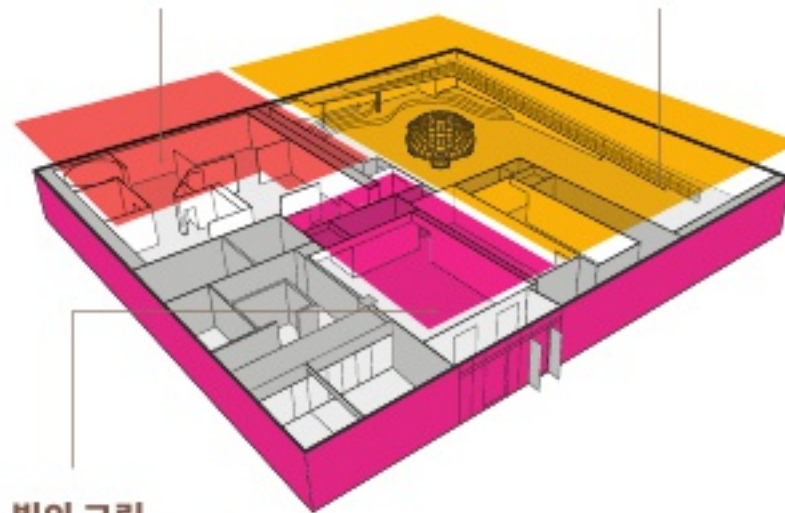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MMCA Collection

"삶, 찬란한 보석이 되다  
Life, Splendid Jewels"

## 빛의 공간 Space of Light

백남준 x 리경 Namjune Paik x Ligyung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애라  
My Jubilee 1st Unverhemmet"



## 빛의 그림 Picture of Light

류재하 Jae-ha Lyu

프로젝션 맵핑 매일 6시/7시/8시부터 10분간 상영.  
Media Projection Mapping Performance at every 6-8 p.m.

"한국을 느끼다 Feel Korea"



주최/주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전시 총 기획 / 운영  
김방은

<한국현대미술의 라이카이드> 기획  
류동건  
(협학-국립현대미술관)

Organized and Administered by  
PyeongChang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18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Exhibition Directed by  
Bongun Kim

<HighLight, K-Art.> Curated by  
Tonghyun Yu  
(Cooperation with MMCA)



